

이유 있는 난동

(정신 지체 3)

I. 폭행을 휘두른 소녀

살다 보면 별 이상한 일을 다 겪는다. 어떤 것은 “그것도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이니”하고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경험하지 아니함만 못 한 일도 있다.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일이 하나 있다.

몇 년 전 어떤 지방 검찰청의 아무개 검사로부터 ‘존속 상해 피의자’인 16세 여자아이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폭행으로 마구 내려찍어 전치 12주 이상의 증상을 입히고 체포되었으나 그 폭행의 이유에 대해 본인이 항구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하므로 그녀의 정신 감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3주간에 걸친 정신 감정의 긴 작업이 시작되었다.

형사(刑事) 피의자 신분인 그녀는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위인 채로 병동에 입실하였다. 감직한 쌍꺼풀눈을 하고 있는 그녀는 다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체격이었으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인지 몹시 왜소한 느낌을 주었다.

호송 경관은 이 아이가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 수사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바보짓을 하는 집안의 애타단지였다는 점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점등을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는 행하니 가 버렸다.

그녀가 정신지체아라는 점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가출해 버려 막일을 하는 아버지와 연로하여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할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 호젓한 집안에서 어떤 이유로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폭행을 휘둘러 초죽음을 만들었는가 하는 점은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알아낼 길이 없는 난감한 문제였다.

더구나 그녀는 이 낯설기만 한 정신병원 환경을 몹시 두려워하고 시종 경계하는 눈치였다. 방법은 별로 없었다. 그냥 하루 종일 함께 놀아 주며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는 다른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와 통화했다. 혹시라도 정인지체아에게서 가끔 나오는 ‘정신병적 삽화’를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던가 하는 점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나와 줄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증상을 입은 아이의 할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억지로 퇴원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거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를 혼자 놔두고 외출할 처지도 못 된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존속 상해로 구속된 딸아이 문제로 정신병원까지 오락가락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주치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병동에 들어가면 얼른 쫓아와서 팔짱을 끼기도 하고 불안한 듯 “다른 사람을 쫓아 달라”고 주문하며 함께 있어 줄 것을 고집하기도 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상황을 처음보다 많이 편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질문에도 비록 아주 짧기는 하였지만 진지한 자세로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진척을 보이자 할아버지를 곡괭이로 내리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던지 눈빛이 흐려지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면서 몹시도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기를 한 보름 남짓,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하던 그녀는 어느 날 붓물이 터지듯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 냈다. 지능이 낮아서 어휘가 한정되어 있는 데다 발음이 어눌하고, 게다가 기억마저 부정확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힘들었던 일들과 끔직한 ‘존속 상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성실하게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고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정인지체아이면서도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낳아 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이 내재(內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II. 쌍꺼풀눈의 그 소녀는

한 번 열리기 시작한 그녀의 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과 악, 도덕적 기준은 무엇이며 하찮은 동물들도 이루고 산다는 가족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깊은 고뇌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도덕과 규범이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인간적 행동'을 규정한 것이라면 그 규정의 이전은 야수적이고 그 이후는 야수적이지 아니하다고 자신 있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쨌든 어렵사리 많은 시간을 끌면서도 그녀로부터 직접 들은 체험담은 이러했다.

그 이야기는 그녀의 덜 떨어진 행동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왔던 할아버지가 자신을 늘 구타해 왔다는 것과, 어느 때처럼 홀랑 발가벗기고 매를 맞던 어느 날 갑작스럽고 강압적인 성폭행을 할아버지로부터 당했으며, 그날 이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짓을 강요당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또다시 할아버지로부터 날아오는 가혹한 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동네에서 빈들거리는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삼촌이 “할아버지와 그 짓 하는 것 봤다. 네 아버지에게 이른다” 또는 “죽인다”며 자신들과도 성 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지금까지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어수룩한 소녀에게는 할아버지와 동네 잡배(雜輩)들이 한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녀는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안다”고 했다.

그녀가 가장 믿고 따르는 단 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지만 그 또한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그 중대한 문제를 적절히 정돈할 능력은 없는 듯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내려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때리니까”라고 요약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굳이 병원에 안 오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딸아이가 5년 이상의 실형을 살 것이다”라는 공갈이 주효했던지 그는 “아이의 큰 엄마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그녀를 보냈다.

병원을 찾은 그녀의 큰어머니는, “애가 워낙 지능이 낮아서 엉뚱한 일을 자주 저질렀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소 팔아서 장만한 돈 백 만 원 이상을 집어다가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어 버린 일도 있었다”는 옛날 일하며,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도록 팬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하며, 언제부터인지 그 아이가 할아버지와 그 짓을 한다는 소문이 쉬쉬하며 마을에 나돌았다는 이야기하며, 그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미쳤네”, “노망했네”라고 거칠게 항의하며 아이를 부둥켜안고 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아무개 아버지와 아무개 삼촌은 오래 전부터 그 집안에 들락거리는 건달기가 있는 동네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은 동네가 창피하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벌이 때문에 오래 전에 그곳을 떠나 버렸다는 것이었다.

객관적인 정보를 짜 맞추고 정신의학적으로 해석하는 순서가 남았다.

정신지체아인 그녀는 단 한사람 그녀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해 오고 있었다. 언제나 강압적인 폭행으로 인해 공포심과 적개심에 가득 차 있던 그녀는 사건이 나던 날 자신이 믿는 오직 한 사람, 그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얻어맞는 것을 목격하면서 용케도 누르고 있던 분노와 적개심이 한 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일순간에 뿔겨 나온 정신병적 난동 (psychotic acting out)은 상상할 수 없는 포악성을 발휘하여 할아버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이었다.

정확히 3주일 후 그녀는 다시 검찰청으로 호송되었다. 너무 씩씩하여 그 뒷이야기를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정신 감정서를 본 담당 검사가 분개하여 할아버지 뿐만이 아니고 아무개 아버지와 아무개 삼촌까지도 붙잡아 갔다고 한다.

삼류 주간지의 가십 거리 같은 이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일을 떠올리면 늘 멍하니 쳐다보던 그 정신지체아 소녀의 쌍꺼풀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